

## “짜릿하고 아찔... 낭만항구 목포 비경 한눈에”

### 6일 개통 앞둔 목포해상케이블카 타보니

“짜릿하고 아찔하지만 한눈에 내려다보는 목포의 풍경은 아름답습니다.”

오는 6일 개통을 앞둔 목포해상케이블카의 미디어데이가 3일 목포해상케이블카 고타도스테이션에서 열렸다.

목포대교를 지나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고타도스테이션은 유달산과 북항 등에 설치된 해상케이블카 정류장 중 한 곳이다. 그곳에는 간편식을 먹을 수 있는 푸드코트와 카페, 기념품숍이 있다. 케이블카 역사와 공사과정을 둘러볼 수 있는 안전홍보관도 마련돼 있다.

이날 미디어데이 행사는 이곳 고타도스테이션을 출발해 유달산을 거쳐 북항스테이션으로 갔다 돌아오는 왕복코스를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최장거리인 3.23km 구간인 목포해상케이블카의 첫 모습은 ‘기대만 걱정반’이었다. 특히 이날 오전부터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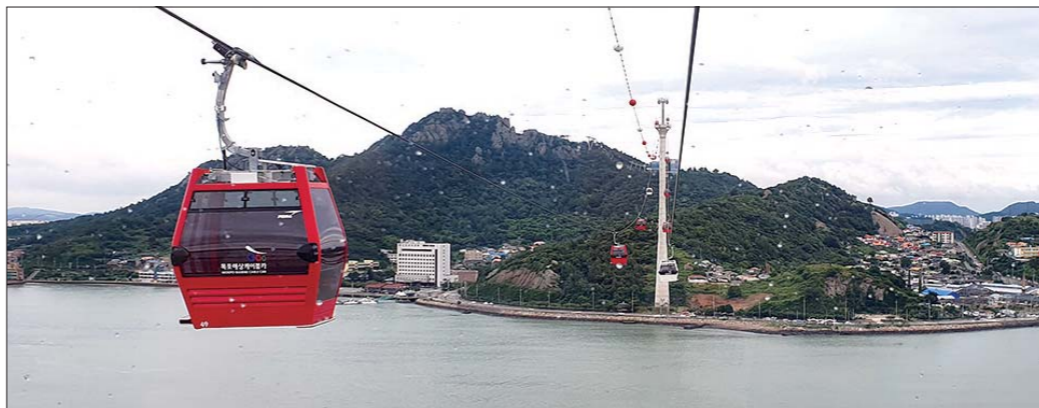
국내 최장 3.23km 감탄 절로 유달산·목포대교·원도심 눈 아래 바람에 흔들릴 뻔 잠시 당황도

도 불기 시작해 무사히 탈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잠시, 기자가 탑승한 케이블카가 승강장을 벗어나는 순간 “와아”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높이 155m의 메인타워로 연결된 케이블을 따라 올라가는 케이블카 아래로는 바다 위로 우뚝 서 있는 목포대교와 그 뒤로 보이는 다도해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 위를 유유히 지나가는 화물선, 저 멀리 보이는 유달산의 기암괴석들은 연신 감탄사를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출발할 당시에는 ‘왜 이리 천천히 가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주위 풍경을 둘러보다보면 어느새 다음 정류장인 유달산스테이션에 도달하게



목포해상케이블카가 고타도스테이션을 출발해 높이 155m 주탑으로 향하고 있다.

된다.

이 곳 유달산스테이션에는 유달산 정상인 마당바위와 일품바위로 오르는 목재계단이 설치돼 있다. 그동안 여러 이유로 유달산을 오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유달산 정상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선물과 같았다.

하지만 내리지 않고 통과를 한 탓에 유달산 정상을 걷는 기쁨은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 정류장인 북항스테이션으로 향했다.

왼편으로는 이전보다 가깝게 보이는 목포대교와 다도해의 풍경이, 오른쪽으로는 오밀조밀 자리잡은 목포 원도심의 풍경이 펼쳐졌다.

저 멀리 보이는 압해도에는 신안군청의 모습이 도드라져 보이는 등 그동안 한눈에 볼 수 없던 풍경들이 눈 아래 펼쳐진다.

하지만 해상케이블카의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바람은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였다. 짜릿한 기분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바람에

흔들리는 케이블카 탑승이 짜릿한 쾌감으로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다소 공포스러운 느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시승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자 좌우로 흔들리는 케이블카의 일부 탑승객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그러나 왕복 40여분간 발 아래 펼쳐진 멋진 풍경들을 보면 이런 기억들을 잊게 만들기에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정인태 목포해상케이블카대표이사는 “케이블카를 설계한 프랑스 포마사의 기술진들이 설계 당시 ‘세계 최고의 뷰’라고 했던 표현처럼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아름다운 절경을 만끽할 수 있다”며 “해상케이블카는 서남해안 관광의 거점도시인 낭만항구 목포의 자량이 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6일 개통식을 갖는 목포해상케이블카는 10인승 55대가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하계(3~10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동계(11~2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에 1시간씩 늘려 운행한다. 도철원기자 rep0333@srb.co.kr



“태풍 닥치기 전에...” 배 수확 가을잠마로 주말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상황에서 제13호 태풍 ‘링링’까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자 3일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배과수원에서 한 농민이 서둘러 배를 수확하고 있다. 임정욱기자 jo5605@srb.co.kr

### 힘 커지는 태풍 ‘링링’...6일 서귀포 접근

세력이 강해지고 있는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오는 6일 우리나라 서귀포 인근에 닿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링링은 이날 오후 기준 대만 부근으로 이동 중이다. 4일 밤 사이에는

대만 동쪽해상을 지난 후 속도가 빨라져 우리나라로 북상할 전망이다.

예상 경로는 목포 인근 서해상을 지나 서해안 인근으로 북상하는 경로다.

우리나라에 인접하는 시점은 6일 오전~7일

오후 사이다. 6일 오후 3시께에는 서귀포 서남서쪽 약 190km 부근 해상에, 7일 오후 3시께에는 원산 남서쪽 약 100km 부근에 육상하겠다. 링링은 이어 8일 오후 3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동쪽 약 230km 부근 육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링링은 대만 부근 고수온역을 지나오면서 점차 강해지겠다. 뉴스

###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막 올랐다

애경·미래에셋·KCGI 예비 입찰 SK 등 대기업 불참... “흥행 실패”

새 주인을 찾기 위한 아시아나항공의 여정이 시작됐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예비 입찰 결과, 애경그룹, 미래에셋대우권소사업, KCGI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SK·GS·한화그룹 등 당초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된 대기업들이 빠져나면서 흥행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채권단이 연내 매각 방침을 밝힌 만큼, 매각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과 매각 주간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은 3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예비입찰을 마감했다.

매각 방식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주식 6천868만주(지분율 31.0%·구주)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보통주식(신주)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호산업과 CS증권 등은 1주일 내에 적격 예비인수자(쇼트리스트)를 선정할 뒤 재무실사를 거쳐 본입찰에 나서게 된다. 앞서 CS 증권은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본입찰을 진행해 우선협상자를 결정하는 등 연내 매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인수전에 참여한 기업은 애경그룹과 미래에셋대우·HDC현대산업개발

권소사업,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등 3곳으로 확인됐다. 예비입찰 참여 기업에 대해 금호산업과 CS증권 모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추가로 입찰을 한 기업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애경그룹은 국내 최대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을 보유하고 있어 아시아나항공 인수 때 시너지가 가장 클 것이라는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인수에 실패하더라도 실사에 참여하게 되면 핵심 경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어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에셋대우권소사업은 미래에셋대우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번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현대산업개발은 면세점과 호텔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어 인수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진칼 2대 주주로 알려진 사모펀드 KCGI가 어떤 기업과 권소 사업을 구성했는지는 향후 인수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삼영기자 seobi@srb.co.kr

### 제8기 무등CEO아카데미 10강

오늘 오후 7시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3층 강사 강우현 탐나라 상상공립 대표 주체 백지상상

당신의 꿈을 함께 이루어나갈 대학교

www.seoyeong.ac.kr

2020학년도  
**서영대학교 신입생모집**  
수시 1차  
2019. 9. 6(금) 09:00 ~ 9. 27(금) 18:00

**2년제 학과** 항공비서과(신설), 생명화학공과(신설), 자동차과, 소프트웨어융합과, 전기과, 소방행정과, 사회복지과(주/야), 호텔조리제빵과, 뷰티미용과

**3년제 학과** 보건행정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임상병리과, 응급구조과

**4년제 학과** 간호학과

※인터넷접수 : 유웨이어플라이, 진학어플라이

**서영대학교**

61268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1  
☎ 입학상담 : (062)520-5008~9, (062)515-5012~3